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보건,

LS일렉트릭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QCD(Quality-Cost-Delivery)는 무의미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Safety)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청주·부산·천안의 3개 제조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주 프로젝트 현장까지 통합관리하는 안전환경지원부문은 현재 약 7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LS일렉트릭 안전환경지원 활동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이

LS일렉트릭 청주사업장

소음정밀진단컨설팅

안전이 없는 QCD는 무의미하다

LS일렉트릭은 청주, 부산, 천안 3개 제조사업장을 비롯해 국내외 수주 프로젝트 현장을 아우르는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방대한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 '안전환경지원 부문'이다. 최근 조직명을 '환경안전팀'에서 '안전환경팀'으로 바꾼 데서 알 수 있듯,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안전환경지원부문을 총괄하는 이근우 부문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QCD는 무의미하다는 철학 아래, 모든 의사결정의 첫 기준에 안전(Safety)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칙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ESG경영이 중시되는 시대, LS일렉트릭은 'S-QCD (Safety-Quality-Cost-Delivery)' 문화 정착을 위해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현장 활동에 안전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기술을 넘어서 문화로 실천하다

“
**노동자 건강이 곧
 안전의 출발점**
 ”



이근우
 부부장

안전환경지원부문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하나, 무재해입니다. 그 시작은 노동자의 건강이고, 끝은 노동자의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안전과 보건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일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근우 부문장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보건을 기반으로 한 안전이야말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자동화를 해도 노동자와 노동환경이 건강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며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산업보건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협력사와 해외 현장까지 포함하는 확장형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더 넓고 단단한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청주사업장은 고령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장기 근속자가 많은 특징이 있다. 때문에 산업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만큼,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체지방 감량 프로그램이다.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식단관리, 운동 지도, 재검사를 통해 개선 효과를 추적하고, 우수자에게는 포상도 수여한다. 또 흡연율이 높아 금연이 어려운 사업장 특성에 맞춰 지역 보건소 및 금연센터와 연계한 장기 금연 유도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김지연 보건관리자는 “장기 근속자가 많아 흡연 기간이 길고 금연 성공률이 낮은 편이지만, 건강 인식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건 중심 활동은 단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노동자 스스로 건강을 챙기게 하는’ 자율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청주사업장은 현재 일부 건물에서 스마트팩토리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제조공정에 ICT를 결합하여 모든 생산 DATA 및 생산성 지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구축하였으며, 외관검사, 포장, 제품이송시스템 완전자동화 등으로 최적화된 생산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과 효율뿐 아니라 안전환경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은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고,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 설계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다. 고준표 팀장은 “자동화는 안전관리의 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작업자 동선과 행동을 설계부터 고려해, 사람 중심의 안전설계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마트팩토리는 2023년부터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생산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장의 소리를 듣는 전문 컨설팅

자동화가 확대되며 작업 효율은 높아졌지만, 반대급부로 공정 소음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자동화 설비에서 사용되는 에어 분사 공정의 영향으로 일부 작업장에서 고소음 노출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S일렉트릭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소음정밀진단컨설팅을 의뢰했다. 주파수 분석기를 통한 고소음원 식별, 보호구 착용 밀착도 검사, 고위험 노동자 파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이 이뤄졌다. 그 결과, 보호구 착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공학적 개선의 필요성도 명확해졌다. 현재는 소음 저감형



노즐 도입, 에어 분사 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고준표 팀장은 “이전에는 자체 개선에 한계가 있었지만, 협회의 컨설팅을 통해 현장 신뢰도와 대응 의지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LS일렉트릭은 협력사와의 상생도 중시한다. 단순 납기나 비용 중심의 계약을 넘어 협력사 안전점검, 법규자문, 개선비용 일부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동반성장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참여 업체는 해마다 늘고 있다. 청주사업장은 또한, 8천만 원을 투자해 VR 기반 안전교육장을 구축했다. 50대의 VR 기기를 활용해 신규 입사자부터 전 직원까지 순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만족도 역시 높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안전보건 골든벨’ 캠페인,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교육 방식도 도입 중이다. 이 모든 활동은 “안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는 조직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권 매니저는 “초기에는 부담스러워하던 협력사도 점차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단순한 점검이 아닌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LS일렉트릭의 안전보건 문화는 법규를 강제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현장 노동자의 시각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LS일렉트릭은 앞으로도 보건 중심의 자율예방 문화를 확산시키며, 국내를 넘어 해외 현장까지 안전보건 관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

“ 무재해 사업장, 혼자 아닌 모두의 힘으로 ”

청주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인 신석호 매니저는 1995년 입사 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7월 7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팀 전체에게도 뜻깊은 결과였다. “저 혼자만의 상이 아닙니다. 초기 설비 투자부터 위험 요소 제거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청주사업장에서는 지게차 AI 자동제동 시스템, 추락방지용 안전대 부착고리 등 실질적인 안전 설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제품 설계 단계부터 안전대 부착고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한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적 조치”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건강한 작업환경이 무재해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신석호 매니저,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석호

매니저

2025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표창